

제국주의 없는 제국과 제국 없는 제국주의 사이

차태근 지음,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소명출판, 2021)를 읽고

윤영도 성공회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2022년 10월 22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3연임을 확정지은 이번 20차 당 대회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대관식’이라는 비유를 써 가며 마오쩌둥과 같은 종신집권으로의 회귀, 내지는 더 나아가 구제국의 황제와도 같은 권좌에의 등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사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변화는 단지 중국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소위 ‘전랑’외교로 불리며 대외적인 강경노선으로 선화한 외교 정책을 비롯해, ‘해양굴기’·‘군사굴기’·‘우주굴기’·‘반도체굴기’ 등과 같이 각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굴기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대외 전략상의 변화는, 더 이상 ‘도광양晦(韜光養晦)’할 필요가 없어진 ‘신시대’ 중화 “제국”의 부활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더 이상 재기의 가능성도 사라져 버린 청 제국의 몰락기부터 이미 서구에 의해 제기되었던 ‘황화론(黃禍論)’이나 ‘중국위협론’을 비롯해, 냉전 이데올로기를 차용한 ‘공산 제국주의’라는 호명, 그리고 최근 ‘굴기’의 상황 속에 다시 등장한 ‘21세기 중화 제국’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그 시대 변화에 따라 이

름을 달리하며 서구와 주변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적인 ‘제국’의 형상으로 재현되어 왔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인접국가로서 중국의 괄목할 만한 변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사태 이후로 그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게 유지되어오던 밀월관계가 차갑게 식고, 험한령과 같은 경제 문화적 보복 기조 속에서 상호 간에 혐중/혐한 정서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중국위협론’과 중화제국 부활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과거 조공국이었던 역사적 기억을 가진 한민족의 입장에서 천하 조공질서라는 중국 역사 속에서의 대국모델이 재조명되는 최근 중국 학계의 상황 자체가 그 제국주의적 욕망의 발현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다.

차태근의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의 문제의식도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담론 전환의 ‘시세(時勢)’

근대 이후 중국의 제국의식과 욕망은 근대 중국의 대국화에 따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대국화를 경계하는 서구의 중국 위협론과 중국의 대국화를 기정사실화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의 부합하는 대국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는 중국의 대국화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중국의 제국의식을 근대 이전 중국의 중화의식 혹은 조공질서의 현대적 재현과 연계시키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 중국은 여전히 제국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국굴기와 더불어 그 무의식이 자의식화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대국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제국으로서의 자의식 및 그것을 구성하는 지식은 전통적인 중화의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근대의 제국주의 담론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현재 중국의 세계 및 자기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역사의식을 보면 여전히 19세기 이래 서구의 중국 주권침탈과 그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시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중국

의 자의식에 있어서는 중화의식이 제국주의 이념을 매개로 한 근대적 제국의식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요약하면 중국은 근대 이후에도 자아의식에 있어 제국이 아닌 적이, 다시 말해서 제국의 의식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자의식의 근대적 전환이란 전근대의 제국에서 근대적 제국으로의 전환이며, 후자는 새로운 것이 아닌 전자의 근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21-22쪽, 이하 쪽수만 기재)

저자는 근대 중국의 제국의식과 욕망이 전통적인 중화의식은 물론 근대 제국주의 담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의식에 있어서는 중화의식이 제국주의 이념을 매개로 한 근대적 제국의식으로 전환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 명제가 어찌 보자면 이 책을 관통하는 요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 중국의 제국의식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하나는 전근대적 제국의식과 근대적 제국의식 사이에는 연속성이 놓여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양자 사이에 놓인 불연속성 내지는 근대적 전환은 서구의 제국주의 이념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전환이 일어났던 시점을 세기 전환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로 특정하고서, 서구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이어지는 담론의 번역 수입 과정을 추적하고,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담론 행위를 통해 제국의식의 근대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국주의 담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결절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책의 2장 부분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이 무렵부터 신흥 강국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태평양과 중국이 식민지 쟁탈전의 각축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청일전쟁(1894~1895) 승리의 대가로 타이완을 식민지로 얻게 된 일본, 그리고 하와이·필리핀 병합(1898)으로 아메리카 대륙 바깥에서 식민지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미국은 둘 다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있었던 서구 유럽 바깥에서 나타난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반문명국상태나 식민지상태로부터 벗어나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된 신흥 제국이었던 점에 남다른 위상과 입장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대화와 제국주의적 발

전을 통해 도태의 위기에서 벗어나 적자생존의 단계로 올라선 일종의 성장 모델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내걸고 탈식민에 성공하였던 미국이 역으로 그 가치에 위배되는 제국주의 팽창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 내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만큼 제국주의 담론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중국 내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 무렵 청일전쟁에서 천하조공질서의 주변국으로 간주해 왔던 일본에게까지 패배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 상실과 함께 타이완, 랴오닝, 산둥 등의 지역까지 할양해 주게 되면서 조공 질서의 와해는 물론 청나라 영토마저 ‘과분(瓜分)’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 왕조 내부로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서구식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무술변법 개혁운동(1898)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서태후의 반정으로 인해 그나마의 개혁도 100일 천하로 끝나 버렸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의화단의 난(1899~1901)의 후과로 베이징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서구 열강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면서 청 왕조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무술변법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한 변법유신파와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중국인 청년 지식인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절박감은 이 같은 당시 중국 국내외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변화의 ‘시세(時勢)’와 결합하여 제국주의 담론을 포함한 다양한 서구 근대 담론의 번역 유입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었고 이는 중국 내의 담론 지형이 일변하는 근대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III. 제국주의라는 ‘메타담론’의 중국적 수용

이 무렵부터 옌푸의 『천연론』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인에 의한 서구 근대화 담론의 직접 번역 수입의 과정은 불과 5년여 만에 그 물길을 틀어 일본을 경유한 번역 유입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고문(古文)에 기반하여 옌푸가 중국화한 번역어와 담론들은 일본식 신조어와 해석에 기반한 서구 근대 담론들로 대체되었으

며, 그 가운데에는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 주목을 끌던 제국주의 담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는 2장을 통해 제국주의 비판론자였던 라인슈(Paul S. Reinsch)는 물론, 찬성론자였던 기딩스(Franklin H. Giddings), 마한(Alfred T. Mahan) 등의 논저에 이르기까지 서구 영미권의 제국주의 담론이 도쿠토미 소호(徳福蘇峰),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 등의 민우사(民友社) 그룹과 우키다 가즈타미(浮田和民), 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등의 헌정당 그룹에 의해 일본에 번역 소개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인 논자 가운데 한 명인 우키다 가즈타미의 미래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은 그 당시 일본화된 제국주의 담론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세계는 작은 공동체에서 더 큰 공동체로의 융합과 연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주권 능력을 갖춘 몇몇 국가들이 지리적, 인종적, 종교적 유사성과 근접성에 근거하여 대연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 국민에 대한 제국주의적 교육이 중요하다. ... 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앵글로 색슨 민족처럼 진취심, 자립심, 강인함, 용맹과 결단력, 공공의식 등과 같은 남성적 도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백인의 문명적 사명처럼 중국, 조선, 태국 등 아시아 민족들이 문명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9)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사회진화론, 문명론, 인종론 등을 혼합하여 그려 낸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 구상은 당시 제국주의가 일종의 메타담론으로서 작동하고 있던 당시 일본에서의 담론 지형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국주의 담론이야말로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자신감에 들떠 있던 일본인들이 20세기 아시아의 패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 팽창 전략의 방향으로 본격 매진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거대 담론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서구의 제국주의 담론이 일본을 경유하여 변법파 지식인들과 재일 중국인유학생들을 통해 중국에 번역 소개되고, 중국 사상담론의 언어가 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밝혀내고 있다. 저자는 제국주의 담론의 근대적

전환의 매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량치차오(梁啟超)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제국주의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사실 무술변법 실패로 망명길에 올라선 이후로 청 왕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변법파의 입장을 견지하며 간행하였던 『청의보(淸議報)』(1898~1901)시 기서부터 ‘입헌파’로서 ‘신민(新民)’이라는 이름하에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매진하며 『신민총보(新民叢報)』(1902~1907)를 간행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량치차오의 사상을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제국주의에 맞서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반제국주의 근대 계몽주의 내지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당시 식민화의 위협에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끼쳤던 량치차오의 사상적 영향은 제국주의적 맥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저자는 “사상가로서의 량치차오의 출발점은 제국주의론이었다.”라고 한 미야무라 하루오(宮村治雄)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신민’설이든 심지어 혁명파의 민족주의든 세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이 모두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인식들도 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170)을 지적한다. 류스페이(劉師培)나 장타이옌(章太炎)과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오히려 서구 열강의 부강의 비밀을 배워서 제국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219)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제국주의론 인식들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뒤이어 4장부터 8장까지는 근대 계몽 교육과 앵글로색슨족 모델론, 문명등급론과 ‘구국의 민권론’, 인종론과 상무의식 및 식민욕망, ‘잠자는 사자’라는 민족 우연과 각성론, 그리고 세계제국을 꿈꾸는 신중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주요 개념과 주제별로 량치차오의 「신민설」이나 「신중국미래기」를 비롯해, 캉유웨이(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 허중(何廻)의 「사자혈(獅子血)」 등과 같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글과 작품들을 살펴 가며 그 속에 내재된 제국주의 담론의 흔적들을 탐색하고 있다.

4장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는 량치차오의 「신민설」의 경우, 거기에 담긴 국민 계몽의 메시지는 민족 경쟁의 제국주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

로서의 의미가 강했으며, 영국의 앵글로색슨 민족을 모델 삼아 강인하고 진취적인 상무정신, 독립, 권리의식, 자치 능력 등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국주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5장에서는 량치차오를 비롯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글 속에 내재된 문명등급론 수용을 통한 제국주의 논리의 모방을, 그리고 6장에서는 『신민총보』에 실린 량치차오의 글들과 허중의 모험소설 『사자혈』, 그리고 강유웨이의 『대동서』에 내재된 상무정신에 대한 강조나 식민지 확장에 대한 욕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제국주의 시대라는 현실인식과 제국주의 담론들이 내재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7장에서는 침체된 나약한 중국의 상징처럼 사용되어왔던 ‘잠자는 사자’의 이미지를 뒤집어 ‘각성한 사자’라는 전도된 미래의 이미지를 꿈꾸었던 중국 지식인들의 담론들을, 그리고 8장에서는 세계 중심의 지위에 등극한 미래 중국의 모습을 그린 량치차오의 『신중국미래기』나 루스어(陸士謬)의 『신중국(新中國)』, 진쥘리(金作礪)의 『신기원(新紀元)』, 쉬즈옌(許指嚴)의 『전기세계(電世界)』 등과 같은 미래 소설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숨겨진 제국주의적 욕망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 저자는 한 세기를 건너 ‘각성한 사자’의 모습에 가까워진 21세기 중국의 변화된 상황과 그에 따라 달라진 자기인식에 대해 기술하면서, 천하체계나 조공질서와 같은 전근대 제국의 질서를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탈근대적 ‘대국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최근 중국 학계의 동향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던지며 이 책을 마치고 있다.

중국의 제국관념을 논하면서 왕후이(汪暉)가 유럽연합을 상기하는 것이나, 자오퉁양(趙汀陽)이 천하관념을 통해 국제연합을 떠올리는 것은... 민족국가 이후의 새로운 국가체제와 세계질서를 사유하기 위한 시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서구 대 동양과 같은 기존의 이원적 사고를 넘어 근대 이전은 물론 근대 이후 중국을 새롭게 건설해 온 이념과 목표, 방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 특히 현대중국이 전근대의 제국으로부터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국민국가를 내핵으로 하는 제국은 왕후이가 말하는 전근대적인 중국적 제국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국가의 연장으로서의 제

국은 종래의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라고 한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은 현대 중국의 제국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세기 반 동안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것을 구성한 인식과 욕망은 무엇이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은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는 중국몽과 중국 위협론이라는 양자택일의 단순 논리를 넘어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중국을 상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한 사자’가 아니라 ‘각성한 인간’이다.(494-496)

IV. 아포리아로서의 탈제국

이 책은 광범위한 독서와 꼼꼼한 분석을 통해 영미권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국주의 담론의 번역 수용과 사상 연쇄의 과정을 추적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중국 근대 사상 및 담론 연구에 있어서 일정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에 잘 깨닫지 못했던 제국주의 담론의 흔적들을 찾아내어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연구공동체 근사재와 함께 진행해 온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근대 시기 동서 문화 교류의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 오면서 쌓아 왔던 저자의 내공과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 귀중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저자의 결론과 현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제언에 심분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머릿속을 맴도는 몇 가지 난제들을 펼쳐 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현대 중국의 자의식을 ‘제국의식’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자의식에 있어서 중화의식이 제국주의 이념을 매개로 한 근대적 제국의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위 ‘메타담론’으로서의 제국주의 이념이 사회진화론, 인종론, 문명등급론, 발전주의담론 등과 같은 서구중심주의적 근대성 담론들을 아울렀던 상위 담론 내지는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근대성 담론의 매개를 거쳐 자의식을 형성한 것

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나 민족 간의 경쟁과 우승열패라는 근대성 담론과 논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에 내면화해 왔던 담론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 누구도, 그 어느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류스페이나 장타이옌과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마저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서구 열강의 부강의 비밀을 배워서 제국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219)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 사실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조차도 근대 제국주의 담론의 자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라강의 표현대로 ‘언어처럼 구조화된’ 이 정치적 무의식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자체가 하나의 아포리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서구 근대 담론의 번역 수용 과정에서 구조화되고 내면화된 이 담론의 질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저자가 언급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나 천광성(陳光興)이 말한 탈식민/탈냉전/탈제국화를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비판’이 그나마 실천 가능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비단 중국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어찌 보자면 ‘각성한 인간’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같은 탈근대적 지향과 운동이 그저 의식 차원에서의 성찰만으로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하나의 난제다. 레닌의 『제국주의』에서부터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근대 제국주의의 토대에 놓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민-국가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법 질서에 대한 본원적 성찰과 비판이 지속되어 왔는데,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색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성찰과 함께 토대와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 ‘제국 없는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 ‘제국주의 없는 제국’으로, 즉 우승열패와 폭력적 팽창주의가 사라진 영구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만 할 것이다.

투고일: 2022년 11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네그리, 안토니오·마이클 하트 저. 윤수중 역. 2001. 『제국』, 이학사.
- 라캉, 자크. 1998.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치 저. 황정규 역. 2017.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대중적 개설』, 두번째테제.
- 양계초 저. 신혜경 역. 2014. 『신민설』, 서울대학교출판사.
- 자오팅양.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 차태근. 2021. 『제국주의 담론과 동아시아 근대성: 현대 중국의 정치적 무의식을 찾아서』.
- 천광성 저. 김진공 역. 2009. “세계화와 탈제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통권 135호, 57-80.
- 汪暉. 2008.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三聯書店.